

꽃 종이접기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박 원 경·장 남 경*

수이콜렉션 대표
한세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수공예적인 오트쿠튀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공예적인 요소와 어우러질 수 있는 모티브로 자연 중에서 꽃을 선정하였으며, 종이접기를 표현기법으로 하여 섬세하고 독창적인 꽃 모티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먼저 꽃의 조형성과 꽃 종이접기 기법, 그리고 꽃의 조형성과 종이접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고찰하였다. 디자인 테마는 수공예적인 섬세함과 고급스러움, 입체적이고 화사한 꽃 모티브의 조형미를 강조한 파티웨어로 설정하였다. 꽃 종이접기의 단순한 부착보다는 실루엣과 연결되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의상에 적용시켰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되고 완성도가 높은 꽃 종이접기 기법들을 선정한 후, 디자인을 구체화시켰다. 달리아, 모란, 창포, 나팔꽃 접기를 응용하여 총 4점의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디자인에서의 꽃의 조형적 표현영역을 확대하고, 종이접기 기법에서의 종이 소재를 패션디자인에 맞게 변용함으로써 새로운 소재기법의 적용에 의한 표현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주제어: 꽃 종이접기, 오리가미, 패션디자인, 오트쿠튀르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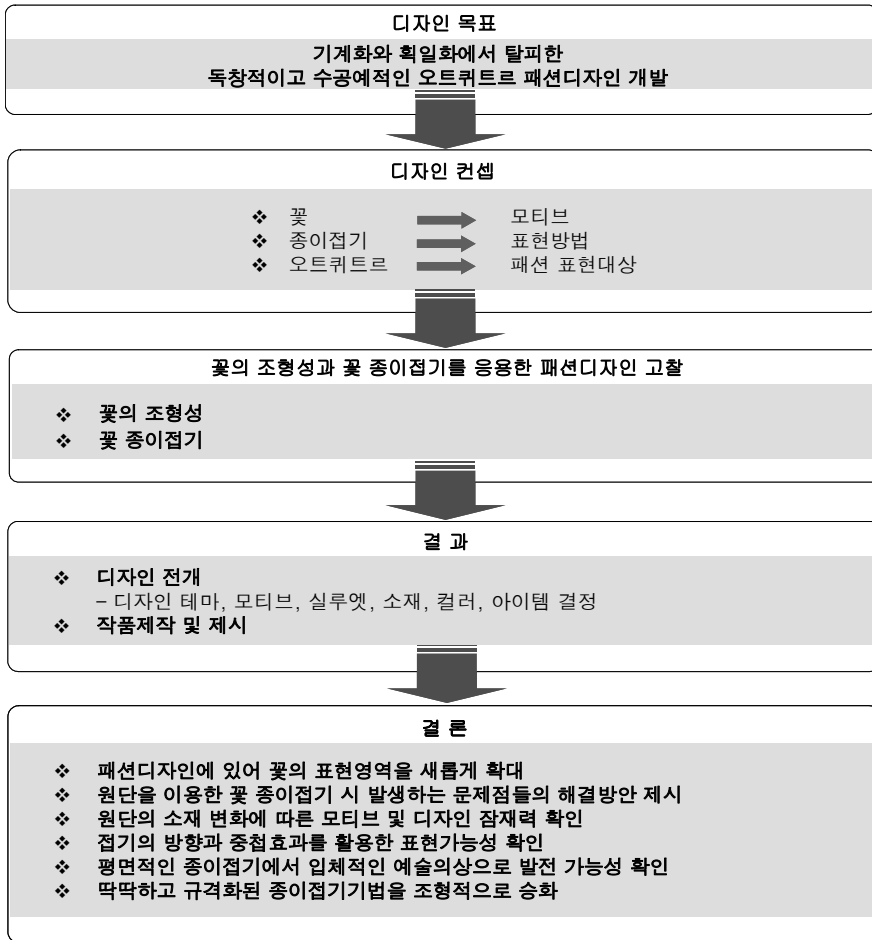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에 적응하고 때론 극복하면서 공존해왔다. 20세기 이후 산업화에 따른 기계의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획일화된 제품이 양산되었다. 이에 패션에서도 수공예적인 오트쿠튀르, 즉 고급맞춤복보다 기성복이 대중의 소비를 주도하게 되었고 패션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1860년대 산업혁명 후 기계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중심의 미술공예운동이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예술적으로 풍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자연에 대한 향수와 수공예에 대한 그리움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면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에 대한 관심이 패션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자연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예술창작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왔다.¹⁾ 패션에서도 자연은 트렌드를 초월하여 오랜 세월동안 디자인의 주제가 되어왔다. 디자이너들은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패션에 표현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자연 그대로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존재하는 특질을 찾아내거나 표현대상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 중에서도 꽃은 형태상에서 보여 지는 환상적이고 조화로운 아름다움, 다양한 색과 신선한 향기로 디자인 활동에 끊임없는 모티브가 되고 있다. 조형적인 측면과 더불어 꽃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형용하거나 더욱 추상화하여 영예로움과 고상함, 번영과 풍요·존경과 기원의 매개물·사랑·미인·재생 등의 의미를 갖는다.²⁾ 이러한 조형적 특징과 내재된 의미로 인해 패션디자인에서 꽃은 대표적인 주제로 각광받아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꽃 문양은 16세기부터 의상을 위한 직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³⁾

종이접기는 종이를 오리거나 풀칠하기보다 접어서 각종 조형물을 만드는 놀이이자 조형예술이다. ‘오리가미(Origami)’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진 종이접기는 평면과 입체 등으로 조형적 재구성이 가능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전 세계 종이접기 애호가들은 접는다는 원칙하에 종이만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재료들을 이용한 실험을 계속하여 왔다.⁴⁾ 종이접기는 아이들에게는 창조와 도전, 그리고 여유 있는 취미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몇몇 페이퍼 폴더들에게는 유용한 예술작품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⁵⁾ 종이접기는 규칙적이면서도 유동적이고, 또한 복잡한 공간의 정렬을 창조하기 때문에 패션에 도입시키면 다양한 실험을 통해 평면과 입체형태의 창조가 용이하다.⁶⁾ 따라서, 인체에 대한 전통적인 재현방법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형태를 탐구하는 영감의 원천이자 표현방법이 될 수 있다.⁷⁾ 꽃 종이접기 기법도 평면에 가까운 부조부터 3차원 입체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옷을 만들기 위해 원단으로 표현 할 경우, 원단의 종류와 재질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의 표현이 가능한 기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다양한 잠재력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구조적인 구성이 강조된 패션디자인들이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종이접기와 패션디자인을 결합시킨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꽃은 프린트 중심의 문양연구가 대부분으로 종이접기 기법을 활용한 꽃 종이접기와 패션디자인의 접목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디자인이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술의 모티브로 연구되어왔던 꽃의 형태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꽃 종이접기 기법을 응용하여 기계화와 획일화에서 탈피한 독창적이고 수공예적인 오트쿠튀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수공예적인 오트쿠튀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공예적인 요소와 어우러질 수 있는 모티브로 자연 중에서 꽃을 선정하였으며, 종이접기를 표현기법으로 하여 섬세하고 독창적인 꽃 모티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에서의 꽃의 조형적 표현영역을 확대하고, 종이접기 기법에서의 종이 소재를 패션디자인에 맞게 변용함으로써 새로운 소재 기법의 적용에 의한 표현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II. 꽃의 조형성과 꽃 종이접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고찰

디자인 전개에 앞서 꽃의 조형성과 종이접기 기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꽃의 조형성에 대한 조사는 꽃의 구조와 조형미에 대해 살펴보고, 꽃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분석을 통해 꽃의 이미지를 패션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종이접기에 대해서는 꽃 종이접기의 정의 및 유래와 기본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종이접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1. 꽃의 조형성

1) 꽃의 구조

꽃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구성되며 4가지 기관이 시작되는 줄기 끝을 꽃받이라고 한다.⁸⁾ 각 기관을 살펴보면 암술은 보통 한 개이며 암술머리, 암술대, 씨방으로 되어 있다. 암술머리는 화분이 붙기 쉽게 끈적끈적하며, 씨방 속에는 밑씨가 들어있다. 꽃의 가장 바깥쪽 부분에는 꽃잎을 받쳐 보호하는 꽃받침이 있고,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싸서 보호하며, 보통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어서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꽃의 구조적 특징은 방사형, 분지의 배열, 나선형을 들 수 있다.⁹⁾ 방사형은 공통된 중심에서 주변으로 규칙적인 회전을 하는 반복된 단위형태를 이루거나, 구조의 분할 면이 방사형을 나타낸다. 갈라지는 분할형태는 꽃잎과 가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좌우 양측 또는 엇갈린 모양으로 가지를 뻗는다. 또한 꽃이나 잎이 황금비나 황금 각에 의해 위치가 나선형으로 나타난다.

2) 꽃의 조형미

(1) 선(line)

꽃에 있어서 선은 중앙의 점에서부터 방사되어 점점 커지는 반복된 곡선으로 리듬감과 율동감을 표현하는 힘을 가진다. 이러한 방사형 균형의 장점은 초점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인지된다는 점인데¹⁰⁾ 이것은 꽃의 대표적인 느낌으로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우리가 방사형의 패턴을 보았을 때 꽃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꽃잎에서 보여 지는 선은 곡선의 둥근 선으로 그 느낌이 대단히 복합적이다. 곡선은 직선보다 단정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만으로 원, 타원, 곡선 등은 여성적인 느낌이나 생명력의 상징으로 연결 지어지는데¹¹⁾, 꽃잎의 부드러운 곡선은 꽃의 이미지를 유연함, 섬세함, 부드러움 등 여성적인 느낌으로 해석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2) 형태(shape)

꽃의 형태는 비형식적인 자유로운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부드러우며 흐르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자연적 혹은 생명적인 형태이다. 꽃의 형태는 자연적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불가능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크기, 색채 그리고 곡선의 변화들은 다양성을 지닌 통일성이라는 유쾌한 시각적 감각을 만들어 낸다. 꽃은 그 형태가 아주 조그맣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뚜렷한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꽃을 구성하는 단위 형태들은 다채로우면서도 통일성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색채(color)

꽃이 가지고 있는 색은 향기와 더불어 종의 보존을 위하여 대단히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꽃에 있어서 색의 요소는 유사색의 조화, 보색 대비 등으로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3) 꽃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꽃은 수세기동안 패션디자인의 주제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꽃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컬렉션작품들을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가 꽃 종이접기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이므로 꽃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입체적 표현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그림 2> 스텔라 맥카트니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3> 레오나르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4> 겐조
(출처: <http://www.elleuk.com>)



<그림 5> 겐조
(출처: <http://www.elleuk.com>)



<그림 6> 크리스찬 디올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크리스찬 디올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2>와 <그림 3>은 나염 등을 통한 평면적 표현이고, <그림 4>와 <그림 5>는 꽃문양 위에 자수나 비즈 등의 장식기법을 추가하는 방법, <그림 6>과 <그림 7>은 의상 자체를 꽃으로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이면서 조형예술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그림 2>는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의 2009 S/S작품으로 번아웃(burn-out) 기법으로 꽃을 단순화하여 표현하였고, <그림 3> 레오나르(Leonard)의 작품은 화려한 색상과 형태의 꽃이 프린트 된 원단을 사용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겐조(Kenzo)의 작품들이다. 첫 번째는 화려한 색상의 꽃문양 위에 스펅글을 이용하여 자수를 놓아 화려

함을 더해주고, 두 번째는 꽃의 형태를 니트로 제작하여 의상에 부착함으로써 부조적인 효과를 주었다. <그림 6>은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2008 오트쿠튀르 작품으로 스커트의 실루엣 전체를 꽃의 형태로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7>은 다트가 없는 심플한 라운드 넥라인의 반팔 드레스에 장미꽃 모티프를 크게 제작하여 스커트 밑단 전체를 둘러주어 3차원 입체감을 주었다. 허리라인부터 시작되어 아래로 향한 비딩 장식은 색상의 배색으로 인해 시각적 집중효과를 주고 있다.

2. 꽃 종이접기

1) 꽃 종이접기의 정의 및 유래

다양한 종이조형 중 꽃을 모티브로 하는 꽃 종이접기는 수천가지 이상의 꽃들을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종이로 제작하여 그림을 그리듯 표현하는 조형예술이다.¹²⁾ 자연 속 여러 가지 꽃의 형태와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모방하여 표현하는 꽃 종이접기 기법과 함께, 오늘날엔 꽃 속에 존재하는 특질을 찾아내어 새로운 표현 기법과 양식으로 그 이미지를 작가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꽃 종이접기 기법들까지 다양한 꽃 종이접기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¹³⁾

꽃 종이접기 기법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여러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같은 종류의 꽃이라 할 지라도 방법과 결과물의 모티브의 모양은 많게는 수 백 종에 이른다. 꽃 종이접기의 제작방법은 약속된 기호로 전개도를 만들어 표현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기호를 숙지하여 기본 조형물을 작업하거나, 더 나아가 창조적인 작업으로 발전시키기도 편리하다. 꽃 종이접기의 제작과정은 그 기호에 따라서 적으면 수 회, 많으면 수십 회 이상 하나의 종이를 접거나, 다양한 기법들을 조합해 매우 복잡한 꽃 종이접기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꽃 종이접기는 우선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야하고, 구성능력이 필요하며 색채에 대한 조화감각, 입체화에 대한 시각화 능력과 함께 공간 구성능력을 요구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즉, 꽃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의 새로운 창조 의지가 2차원 평면과 3차원 입체 공간을 통해 예술적 형태로 표현되는 만큼 그 표현의 방법과 종류를 한정지어 설명할 수는 없다.

종이접기는 오랜 세월동안 손에서 손으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꽃 종이접기 또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종이 발명, 널리

보급된 이래 인간의 본능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종이접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⁴⁾ 종이조형 문화가 많이 발전한 일본에서는 종이조형이 이미 19세기에 조형놀이로서 유행하고 있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과 같은 틀을 잡게 되었으며, 명칭도 ‘오리가미(折紙)’로 굳어졌다. 현재도 전통을 답습하면서 현대생활에 적응하는 종이접기를 창안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오리가미’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꽃 종이접기 기본 기법

꽃 종이접기는 종이조형의 한 분야로 종이조형 기법인 구부리기(bending), 말기(curling), 접기(folding), 새김질(scoring), 자르기(cutting), 엮기(interlacing), 구멍내기(punching), 넓히기(expanding), 오므리기(curling), 오려내기(cut out), 잇기(join), 누르기(press), 짓구김(crush up), 찢기(break up), 조각내기(stripping), 겹치기(laminating), 붙이기(glicing), 잡아뜯기(pluminating)¹⁵⁾ 등 종이접기의 모든 기법을 사용하여 3차원적 입체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종이조형의 기법 중에서 꽃 종이접기에 많이 쓰이는 십자 접기, 규칙적 접기, 크기 변화에 따른 접기, 다방향 접기 기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십자 접기

접기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접힌 방향에 수직으로 다시 접는 접기의 한 종류이다. 접히는 횟수에 따라 2번 꺾기, 3번 꺾기라고 하는데, 두 번 접은 종이는 가로, 세로로 날카롭게 접으면 어떤 강조된 장엄함을 보여준다. 종이를 세 번, 네 번 꺾어 접으면 종이의 종류에 따라 잔주름이 나타나며, 종이는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덜 뾰뾰해진다. 마구 구겨진 종이를 다시 평평하게 펼치면, 작은 면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에서 기하학적인 규



<그림 8> 십자 접기
(출처: <http://www.ericjoisel.com>)



<그림 9> 규칙 접기
(출처: <http://www.origami-artist.com>)



<그림 10> 크기 변화 접기
(출처: <http://www.ericjoisel.com>)



<그림 11> 다방향 접기
(출처: <http://www.origami-artist.com>)

칙성을 볼 수도 있다<그림 8>.¹⁶⁾

(2) 규칙 접기

규칙적으로 접기는 주름을 형성하는 기본 평행선에 대해 직선 방향으로 잘 움직여 말아지므로 간단하게 제 2차적 부조형태의 입체를 만들 수 있으며, 접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다. 규칙 접기 중 가장 보편적인 접기는 아코디언 접기라고 하며 주름 스커트, 대형 카메라의 주름과 같은 일상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림 9>.¹⁷⁾

(3) 크기 변화 접기

크기 변화 접기는 크기의 규칙성을 가지고 접는 것과 달리, 크기에 변화를 주어 비스듬히 접거나 또는 나선형의 패턴을 만들어 접음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착각을 유발시킨다<그림 10>.¹⁸⁾

(4) 다방향 접기

다방향 접기는 위와 같은 기법처럼 일정한 법칙을 토대로 규칙적으로 접는 방법들과는 달리 여러 방향으로 접어서 기하학적인 입체의 형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떠한 규칙적인 연속의 흐름보다는 일정한 법칙 내에서 그 법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의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접기의 방법이다. 이러한 다방향 접기는 불규칙적인 여러 방향으로 접기가 가능해 기하학적인 입체의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11>.

3) 종이접기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꽃 종이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는 앞서 꽃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조사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종이접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였다. 자료는 꽃을 응용한 패션디자



<그림 12> 엘르 사브 2007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3> 크리스찬 디올 2007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4> 지방시 2007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5> 이세이 미야케 2009 S/S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6> 지방시 2006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7> 아르마니 프리베 2006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8> 이세이 미야케 2008 F/W
(출처:
<http://www.firstviewkorea.com>)

인과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자료만을 수집하여 앞의 종이접기 기본기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규칙접기, 크기변화 접기, 다방향접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먼저 규칙접기를 응용한 작품사례를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는 규칙접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고, <그림 15>, <그림 16>은 규칙접기를 한 후 자유로운 방법으로 인체 위에 드레이핑하여 색다른 조형성을 추구한 작품이다. 엘르 사브(Elle Saab)의 2007 S/S 오트쿠튀르 작품인 <그림 12>는 규칙 접기로 기계주름을 잡은 원단을 전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입체적인 조형미를 주는 동시에 움직임에 따라 수직적인 선이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율동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규칙 접기를 이용할 때 접힌 원단의 폭에 여유를 주어 움직임에 있어서 편안함을 주었다. <그림 13>은 크리스찬 디올의 2007 S/S 작품으로 딱지 접기 기법을 응용하였는데, 종이접기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주었다. <그림 14>는 지방시(Givenchy)의 2007 S/S 오트쿠튀르 작품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접기를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비치는 얇은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작된 이 드레스는 접기를 통한 중첩효과와 입체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2009 S/S 작품으로 플리츠를 인체에 결합시켰다. 플리츠가 내포하고 있는 다이내믹한 공간은 인체의 윤곽을 살리면서 활동성에 무한한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직선의 딱딱하고 견고한 느낌과 함께 율동을 동반하여 몸의 움직임이나 동작에 의해 다채롭게 변할 수 있다. <그림 16>은 지방시의 2006 F/W 오트쿠튀르 작품으로 규칙접기를 한 후 다시 접거나 구부러져 곡선감과 입체감을 살려주었다. 접은 선들의 움직임을 독특하게 표현하였으며 촘촘히 접힌 선들이 다양하게 힘을 받아서 늘거나 일어서게 되는데 이런 우연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3차원적 입체적 재질감과 조형미를 보여주었다.

<그림 17>은 크기 변화에 따른 접기를 이용하여 나선형의 패턴을 제작하여 의상에 응용한 작품이다. 원단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두고, 크기 변화에 따른 접기 기법을 이용하여 나선형의 패턴을 만들고 그 것을 이용하여 칼라에서부터 앞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장식하였다. 목 칼라부부분에서는 중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넓게 크기변화를 주어 중심으로 모아지는 선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조형적인 입체감을 준다.

다방향접기 사례로 <그림 18>는 이세이 미야케의 2008 S/S 작품인데, 기본 평행선에 대해 직선방향으로 접고, 중앙과 양 쪽을 붙여 고정시킴으로서 마름모 모양의 단위 형태를 만들어 연결하였다. 단위형태들의 다양한 방향의 접기 선과 단위형태들의 연결선들이 각 각 조형적 형태를 만들어 입체감을 보여준다. 이 밖에 앞에서 설명한 입체 꽃 종이접기 작품들이 다방향접기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에 포함된다.

III. 결 과

1. 디자인 전개

본 연구는 꽃의 입체적인 형태를 종이접기 기법을 이용해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먼저 6종(나팔꽃, 무궁화, 창포, 모란, 달리아, 등꽃)의 꽃 종이접기를 다양한 크기의 종이로 실험하였다. 접은 꽃들의 조형성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의상디자인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한 후 1/4바디에 부착하여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였다. 꽃 종이접기의 단순한 부착보다는 실루엣과 연결되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의상에 적용시켰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완성도가 높은 꽃 종이접기 기법들을 선정한다

후, 디자인을 구체화시켰다.

디자인 테마는 수공예적인 섬세함과 고급스러움, 입체적이고 화사한 꽃 모티브의 조형미를 강조한 파티웨어로 설정하였다. 전개된 아이디어 중 총 4점의 디자인을 제작하였는데, 작품 1은 달리아, 작품 2는 모란, 작품 3은 창포, 작품 4는 나팔꽃 접기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전체적인 작품의 색채는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밝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여 화사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작품 4는 블루계열의 나팔꽃을 강조하고자 블랙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접기의 방향에 따라 한 면의 안과 밖이 함께 보이는 꽃 종이접기 기법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패턴 상에서 원단의 안감과 겉감의 색채 대비를 느낄 수 있는 색채계획을 하거나, 원단 자체를 그라데이션으로 염색하여 색채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꽃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소재선정에 있어서는 먼저 색종이로 꽃을 접은 후, 꽃 모티브의 조형적 특징과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원단으로 실험하였다. 여러 소재로 실험한 결과 꽃 종이접기 기법의 특징인 조형미와 접었다 다시 펼쳤을 경우 나타나는 접기 선 특유의 재질감을 부각시킬 수 있고 꽃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부드러운 조형성을 살릴 수 있는 공단실크, 수직실크, 실크노방, 타프타를 본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꽃 종이접기와 패션디자인의 접목에 중점을 두어 조형적이고 입체적인 실루엣을 강조한 미니드레스로 디자인 하였다.

2.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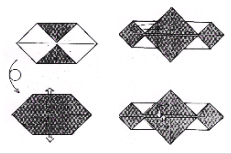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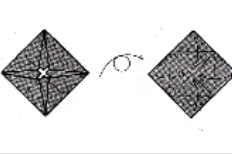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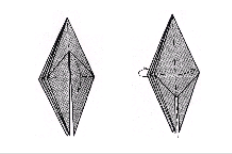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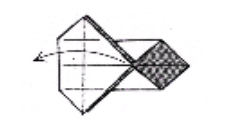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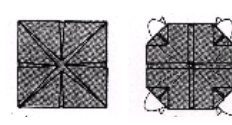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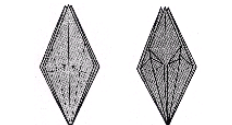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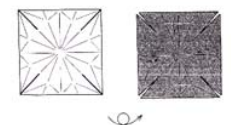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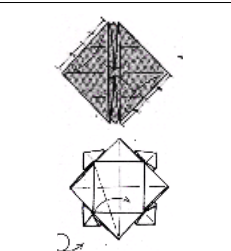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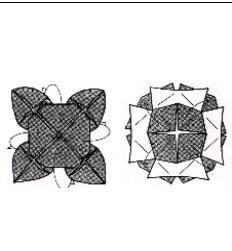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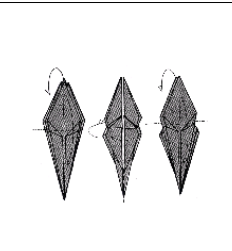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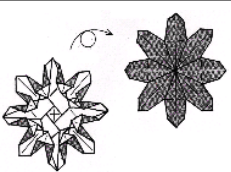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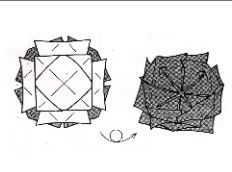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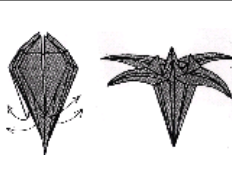

꽃 종이접기 기법을 색종이로 익힌 후, 해당 꽃 종이접기의 표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재를 선정하였다. 종이가 아닌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첫째, 원

단은 종이와는 달리 말거나 구부렸을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성이나 말리거나 구부러진 상태로 고정되는 힘이 없다. 둘째, 원단은 접었다 펼칠 경우 접은 선이 종이와는 달리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으며, 고정이 되지 않는다. 셋째, 종이는 잘랐을 경우 단면이 날카롭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반면 원단은 그렇지 않다. 넷째, 종이는 풀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수 있지만, 원단은 그렇지 않다.

위의 차이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스팀다리미를 사용하여 접기 단계 마다 고정시켜주어 접는 선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였다. 정사각형 원단에 스팀을 줄 때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하여 작업하였다. 특히 공단실크는 늘어나기 쉬우므로, 안감을 늘어남이 비교적 없는 뽀뽀한 실크 노방 원단이나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여 정사각형을 만들어 뒤집어서 시접처리를 한 뒤에 작업하였다. 스팀다리미로 고정이 안 될 경우에는 홈질로 고정해주었으며, 시접처리가 어려운 원단의 경우는 자르기 과정을 생략하고 더 입체적으로 펼쳐 바느질로 부분 고정시켜 주었다. 또한, 실크 노방의 경우는 울을 자연스럽게 풀거나 불규칙적으로 구겨서 스팀으로 고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여 독창적이고 다양한 느낌의 꽃 모티브를 제작하였다. 작품에 응용한 꽃의 종류에 따라 기법과 특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나팔꽃 접기는 가위로 자르고 뒤집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고, 달리아와 모란꽃 접기는 접었다 펼친 접기 선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창포꽃 접기는 탄성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입체적인 조형미를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작품에 사용되어진 꽃 모티브의 접기 과정은 <표 1>과 같고, 작품 1에서 달리아를 원단으로 접어 제작하는 과정은 <표 2>와 같다. 또한, 작품의 디자인 전개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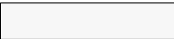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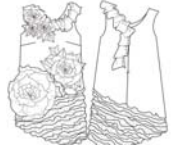


<표 1> 꽃 모티브 접기 과정(19,20,21,22)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모티브	달리아	모란	창포	나팔꽃
				
	시침핀으로 고정하면서 접은 후, 스템다리미로 눌러서 고정한다.	각 모서리를 중앙으로 2번 반복하여 접은 후, 스템다리미로 고정한다. 뒤집어서 반복한다.	꽃 접기 기본형에서 시작한다. 화살표처럼 네 면 모두 접어 스템다리미로 고정한다.	꽃 접기 기본형을 접고 스템다리미로 고정한 후, 다시 모두 펼친다.
				
	한쪽을 눌러 접어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다시 펼친 후 스템으로 고정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은 후, 고정한다.	네 모서리를 뒤로 눌러 접은 후, 스템다리미로 고정하고 바느질로도 고정한다.	네 면 모두 그림과 같이 중심선에 맞춰 눌러 접어, 스템다리미로 고정 하고 바느질로 고정한다.	뒤집어서 접기 선을 따라 다시 접고, 바느질로 고정한다.
접 기 과 정				
	마주보는 두 모서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접어서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 각 모서리를 펴준다. 뒤집어서 네 모서리 모두 접기 선을 따라 접고, 스템다리미로 고정한다.	뒤집어서 네 모서리를 화살표 방향으로 밖으로 뒤집어준다.	네 면의 모서리를 화살표 방향으로 모두 접어 내려, 스템다리미로 고정한다.	꽃의 중심을 향해 잎을 모아 바느질로 고정하고, 각의 모서리를 반으로 접어 바깥 접기로 끼우고 바느질로 고정한다.
				
	뒤집은 후, 모든 대각선에 흠질을 해서, 고정과 장식효과를 동시에 준다.	맨 아랫면이 보일 때까지 반복하여, 뒤집어주고 바느질로 고정한다.	각 모서리를 입체적으로 펼쳐 모양을 다듬은 후, 바느질로 고정한다.	꽃의 중심에 장식용 꽃술을 끼워 바느질로 고정한다. 잎의 접힌 선을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가며, 동그랗게 다듬어준다.

<표 2> 달리아 접기 제작과정

			
① 종이를 이용하여 실험한다.	② 종이로 꽃 모티브를 완성한다.	③ 종이 모티브의 크기를 기준으로 원단을 재단한다.	④ 시침편을 사용해 원단을 고정하며 접는다.
			
⑤ 스팀다리미를 이용하여 접기선을 고정한다.	⑥ 완성된 모티브를 홈질로 고정하면서 장식한다.	⑦ 손으로 비벼서 구김을 주고, 울을 푼다.	⑧ 꽃심을 만들 원단에 주름을 주어 고정한다.
			
⑨ 꽃심과 꽃잎을 바느질로 고정한다.	⑩ 꽃 모티브에 비딩을 하여 장식한다.	⑪ 다양한 사이즈의 꽃잎을 뒤로 겹친다.	⑫ 풍성하게 울을 풀고, 구김을 준다.

<표 3> 디자인 전개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달리아	모란	창포	나팔꽃
모티브				
꽃 종이접기				
소재	실크 노방, 공단 실크	실크 노방, 공단 실크	타프타	수직 실크, 타프타 실크 노방
색채				
아이템	원피스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	원피스 드레스
도식화				

3. 작품 제시

1) 작품 1

작품 1은 다방향 접기로 달리아 종이접기를 응용한 작품이다. 베이지-주황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염색을 한 공단 실크에 실크 노방 소재의 울 풀림과 구김효과를 통해 창의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원피스의 상체는 볼륨감 있는 달리아 꽃잎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스커트는 A라인으로 디자인하였는데 공단 실크를 베이지, 주황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염색하여 자연스럽게 흐르는 색상의 느낌을 의도하였다. 원피스의 뒷부분에 실크 노방 원단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하여 자연

스러운 주름을 주어 바람이 불거나 움직일 때마다 날리는 옷깃에서 율동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의 포인트는 뒷장식부분인데, 실크 노방을 이용하여 사이즈를 다르게 제작한 달리아 모티브들을 겹쳐 스티치로 고정한 후, 스와로브스키로 비딩하여 화려함을 더해주었다. 달리아 종이접기 기법의 특성상 실크 노방 원단으로 접어 스티치로 고정하고, 각 각의 꽃잎을 홈질 스티치로 고정시켜 주었으며, 꽃의 끝단을 울을 풀고 다시 전체적으로 손바닥으로 비벼가며 스티치로 고정하여 모티브에 자연스런 구김효과를 주었다. 그 결과, 본래 종이접기로 제작한 달리아 모티브보다 더욱 풍성한 재질감과 조형미가 느껴지는 달리아 모티브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림 19> 작품 1 전면과 후면



<그림 20> 작품 1 세부

2) 작품 2

작품 2는 다방향 접기로 모란꽃 종이접기를 응용한 작품으로, 실크 노방 중에서도 뽀뽀하고 두께감이 있는 원단을 선택하여 종이접기 기법 특유의 날렵한 끝선과 입체적 조형미를 최대한 살렸다. 또한 모란꽃 모티브를 전면에 풍성하게 배치하여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의도하였다.

모란꽃 모티브를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하여, 여러 겹을 안으로 겹쳐서 바느질로 고정시켰다. 원피스의 넥라인에는 종이를 접듯이 원단을 다방향으로 접어 홈질스티치로 고정시켜주었으며, 뒤

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디자인하여 선의 율동적인 움직임을 의도하였다. 원피스의 스커트 아랫단 전체에 비데칭으로 원단을 촘촘하게 끼워 넣어 박아주었는데, 이는 종이조형의 자르기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입체감과 선의 율동미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꽃 종이접기 기법으로 제작한 꽃잎에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고 모란꽃 모티브와 함께 표현함으로써 더욱 폭 넓은 꽃 종이접기 기법을 보여주었으며, 원피스의 실루엣은 꽃의 조형미를 강조하기 위해 단순한 H라인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21> 작품 2 전면과 후면



<그림 22> 작품 2 세부

3) 작품 3

작품 3은 다방향 접기로 창포꽃 종이접기를 응용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백 아이보리 색상의 타프타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깨끗한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창포꽃 종이접기는 겹감과 안감을 정사각형으로 재단 한 후, 가장자리를 돌려 박고 뒤집어서 시접정리를 한 후 접기 시작하였다. 접기를 하는 과정마다 스팀을 주고 바느질로 고정시켰다. 안감을 웨딩드레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두꺼운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여, 얇은 타프타 원단에 힘을 주는 동시에 제작과정에서 스팀에 의해 타프타 원단이 늘어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하였다. 창포꽃 모

티프를 원피스의 스커트 밑자락에 배치하여, 3겹의 타프타로 풍성하게 제작한 스커트의 러플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러플의 선들과 창포꽃 모티브의 선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선의 율동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원피스 상체의 실루엣은 풍성한 프릴의 스커트와 조화를 이루면서 창포꽃의 이미지를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앞 중심선 양쪽으로 두개씩 절개선을 주어 그 사이에 꽃잎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재단한 원단을 끼워 박고, 바느질로 고정하였다.



<그림 23> 작품 3 전면과 후면



<그림 24> 작품 3 세부

4) 작품 4

나팔꽃 종이접기 기법을 응용한 작품이다. 네크라인은 종이조형 기법 중 하나인 규칙 접기를 이용하여 평행 접기로 플리츠를 잡은 실크 노방 원단을 여러 겹 겹쳐 셔링을 주어 풍성한 라인을 살려주었으며, 그 주름의 선과 나팔꽃 모티브에서 나타나는 면을 함께 표현하여, 종이접기에서 오는 선과 면의 느낌을 조화롭게 의상에 응용하여 접목하였다. 또한, 플리츠가 잡혀있는 셔링 사이에 나팔꽃을 재배치하여 마치 꽃잎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과 같은 입체감과 조형미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소재는 수직실크를 선택하여 고급스러운 이미

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고, 안감과 겉감을 검정과 파랑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팔꽃 종이접기 기법의 특징인 하나의 모티브에서 볼 수 있는 색상대비를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원피스의 실루엣은 프린세스 라인의 심플함에 안감을 대비되게 재단한 넓은 원단을 끼워서 재봉한 후, 자연스럽게 드레이핑 하여 울동미과 함께 움직임에 따라 안감과 겉감의 색상대비가 조화롭게 나타나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네크라인의 장식요소는 따로 분리되는 디자인으로, 머플러나 벨트 등 다양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5> 작품 4 전면과 후면



<그림 26> 작품 4 세부

IV. 결론 및 제언

꽃은 그 속에 내재한 생명 근원의 의미와 형태 상에서 보이는 조화로운 아름다움, 다양한 색과 신선한 향기로 패션을 비롯한 예술작품에 많이 표현되어왔다. 본 연구는 꽃의 형태를 디자인의 모티프로 하고, 꽃 종이접기 기법을 응용하여 기계화와 획일화에서 탈피한 독창적이고 수공예적인 오트쿠튀르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에서의 꽃의 조형적 표현영역을 확대하고, 종이접기기법에서의 종이 소재를 패션디자인에 맞게 변용함으로써 새로운 소재기법의 적용에 의한 표현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꽃의 형태를 꽃 종이접기 기법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꽃의 표현영역을 새롭게 확대시킬 수 있었다.

둘째, 종이가 아닌 원단을 이용하여 꽃을 제작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래의 종이접기 기법에서의 접기, 말기, 자르기 등의 표현방법들을 스티치 장식, 스티프 고정, 시접처리를 위한 뒤집어 박기와 끝선 올풀기 등 원단에 알맞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 연구하여 꽃 모티브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꽃 종이접기 기법 특유의 날렵한 끝선과 조형적 표현이 잘 드러나면서도 원단을 이용한 꽃 모티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셋째, 종이가 아닌 원단을 이용할 경우 원단의 소재와 재질감에 따라서 같은 꽃도 다른 형태와 느낌을 가진 모티프로 발전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원단으로 제작한 꽃 모티브는 접기의 방향에 따라 안감과 겉감이 함께 겹쳐지는 중첩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중첩효과를 살려서 색채 계획을 세우고 배색하면 꽃의 형태는 물론 색채에 있어서도 풍부한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하나의 작은 유니트로 이루어지고, 평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이접기에서 더 나아가 입체적이고 예술적인 의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여섯째, 소재의 투명성, 플렉시블한 특성, 그라데이션, 자연스러운 올풀림 등으로 딱딱하고 규격화된 종이접기기법을 조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되어진 미니 드레스뿐만 아니라 재킷이나 스커트 등으로 아이টে임을 다양화 하거나 꽃 종류와 소재를 다양하게 패션 디자인에 접목한다면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 개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박현주, 양취경 (2002). 꽃의 형태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복식, 52(3), pp.61-73.
- 2) 이상희 (2004).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서울: 넥서스, p.21.
- 3) Harris, J. (1993). 5000 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p.36.
- 4) Beech, R. (2001). 종이접기 배우기, 안소희 옮김 (2004). 서울: 넥서스, p.6.
- 5) Temko, F. (2001). Origami for Beginners: The Creative World of Paper Folding, Singapore: Tuttle Publishing, p.3.
- 6) 김정신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이작업의 조형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pp.30-45.
- 7) 임은혁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가미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3(8), pp.1253-1261.
- 8) 이남숙 (2000). 피어라 폴꽃, 서울: 다른세상, p.28.
- 9) 이유성 (2002). 현대식물 분류학, 서울: 우성, p.107.
- 10) Lauer, D. A. (1990). 조형의 원리, 이대일 옮김 (1996). 서울: 예경, p.75.
- 11) 김춘일, 박남희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p.27.
- 12) Momotani, Y. (1989). 봄꽃 종이접기, 종이나라 옮김 (1997-a). 서울: 종이나라, p.7.
- 13) 위의 책, p.7.
- 14) 노영혜 (1990). 종이접기 교실, 서울: 종이나라, p.3.
- 15) 高山正喜久 (1982). 立體構成の基礎, 東京: 美術出版社, p.26.

- 16) Zeier, F. (1974). 조형연습, 권영길, 김현중 옮김 (1987). 서울: 대우출판사, p.34.
- 17) 위의 책, p.93.
- 18) 위의 책, p.93.
- 19) Momotani, Y. (1997-a). 앞의 책, pp.1-68.
- 20) Momotani, Y. (1989). 여름꽃 종이접기, 종이나라 옮김 (1997-b). 서울: 종이나라, pp.1-68.
- 21) Momotani, Y. (1989). 가을꽃 종이접기, 종이나라 옮김 (1997-c). 서울: 종이나라, pp.1-68.
- 22) Momotani, Y. (1989). 겨울꽃 종이접기, 종이나라 옮김 (1997-d). 서울: 종이나라, pp.1-68.

Fashion Design using Flower Origami

Park, Won Kyung · Jang, Nam Kyung[†]

President, Sooa Collecti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extile & Fashion Design, Ha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example of haute couture fashion design that prevents reproduction of the same designs and standardization but promotes unique and hand-crafted fashion design. Different forms of flowers were selected from natural objects as the design motif, and flower origami was the technique of choice. First, the formative beauty of flowers and origami technique were reviewed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Examples of fashion design that applied flower or origami technique were examined. Second, the design was progressed. Various flower origami experiments were repeated to complete flower origami with textiles. The formative aesthetic of flower origami made of textiles as well as possibility for developing unique fashion designs were analyzed. Designs focused on creating 3-dimensional silhouettes with flower origami, rather than connecting or attaching flower units. As a result, four flower origami fashion designs using dahlia, peony, green pepper, and morning glory motifs were developed and produced. The results expanded the expression of flower in fashion design and suggested solutions for making flower origami with textiles. Indeed, the results showed that conventional characteristics of paper origami such as flatness and hardness could be transformed to artistic fashion. Based on this research, further studies could expand the range of study to various items such as jackets or skirt. Also, they could experiment with different kinds of flowers and materials.

Key words: flower paper folding, origami, fashion design, haute couture